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 경험분석: 포커스그룹 면담

김두리¹, 강경희², 이병임³, 김광환^{4*}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²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³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elderly living alone: Focus group interview

Doo Ree Kim¹, Kyung-hee Kang², Byunglim Lee³, Kwang-Hwan Kim^{4*}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³Dept. of Liber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D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8명의 대상자를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당 50-70분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 자발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피할 수 없는 쓸쓸함’, ‘어쩔 수 없는 죽음’, ‘내 삶의 수용’ 인 3개의 주제모음과 ‘배우자의 부재’, ‘자녀를 위한 독립’, ‘주변인(친구)의 죽음’, ‘홀로 남겨진 죽음의 두려움’, ‘내려놓기’, ‘내 건강 챙기기’, ‘나만의 방식으로 외로움 달래기’ 의 7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독거노인 연구대상자들은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표현하였고,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표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독거노인, 외로움, 쓸쓸함, 죽음, 수용, 면담, 융합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research that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using the result of focus group interview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28 subjects in the Senior Welfare Center of D city. For the purpose, 28 persons were divided into 5 groups, an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each group for 50-70 minutes. and the voluntary character of research participation was sufficiently explain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ree topic collections consisting of ‘Unavoidable lonesomeness’, ‘Inevitable death’, and ‘Acceptance of my life’ and seven subjects, which consist of ‘Absence of spouse’, ‘Independence for children’, ‘Death of neighbor (friend)’, ‘Fear of death left alone’, ‘Laying down’, ‘Taking care of my health’, and ‘Soothing loneliness in my own way’, were derived. The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expressed their feeling of unavoidable loneliness and their effort to overcome the lonelines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diverse plans to overcome psychological loneliness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ill be developed.

Key Words : Elderly people living alone, Loneliness, Lonesomeness, Death, Acceptance, Interview,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6066807)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 (kkh@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28, 2018

Revised March 3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1. 서론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 사는 개념으로 가구의 의미가 쓰였지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점차 1세대 가구가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독거노인(獨居老人:the aged living alone)이란 노인이 속한 세대를 구분하는 범주의 하나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즉,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독거노인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15년 138만, 2035년 343만 가구로 급증하여 전체노인 중 23.3%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는 전반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불가역적인 현상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은 농어촌 지역, 여성노인, 70대 후반에서 높게 나타났다[2,3]. 독거노인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일반 노인 집단에 비해 취약하며 역할상실, 신체적 쇠퇴, 고립, 배우자 사망, 주변인의 죽음 등으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독거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4,5]. 독거노인은 주변인, 배우자 등의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친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 저하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게 된다[6]. 고령화 시대로 인해 독거노인들의 경험하는 대표적 문제로는 거동불편, 소외,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집약적인 문제는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대인관계 저하의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 우울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우울은 추후, 노인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7].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이나 주거, 안전 등 환경개선, 심리적·정서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는 취약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자원조차 결핍 된 경우도 있다[8].

독거노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독거 노인들에 비하여 신체적 질환이 더 많고 삶의 욕구나 의욕이 상실, 불안, 갈등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이겨내기 힘들고 좌절하기 쉽다[9].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독거노인의 불안, 우울, 고독,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독거노인을 우울, 및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고 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시사해주기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을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을 위한 심리적지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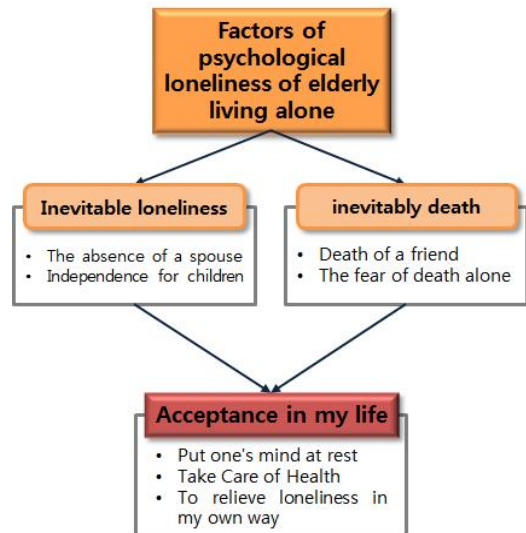


Fig. 1. loneliness in elderly living alone factor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D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먼저 D시 노인복지관의 상담실장으로부터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담실장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편의추출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질적연구는 면담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본 연구 참여에 적절한 대상자(면담에 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답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자가 선정하기 보다는 연구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중개자(gatekeeper)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연결해 주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합하여 노인복지관의 상담실장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중개지역할을 수행한 D시 노인복지관 상담실장은 본 연구와는 이해상충 관계가 없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대상자만을 연구자에게 연계하였으며, 모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압박, 또는 강요는 없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남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 82.1%, 남자 17.9%로 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이로는 “71-80세”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81세 이상”가 32.1%, “70세 이하” 3.6%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50.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양호하다” 28.6%, “나쁘다” 2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보통이다”와 “좋은 편이다”가 50.0%로 응답하였다. 종교로는 “있다”가 64.3%, “없다”가 35.7%로 “있다”가 더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Category	N(%)
gender	
men	5(17.9)
women	23(82.1)
age	
Under 70	1(3.6)
71-80	18(64.3)
81 years old or older	9(32.1)
Health status	
Healthy	8(28.6)
Normal	14(50.0)
Unhealthy	6(21.4)
interpersonal relation	
good	14(50.0)
Normal	14(50.0)
bad	-
religion	
Religion	18(64.3)
Non-religion	10(35.7)

2.2.1 질문개발

본 연구 수행 전 포커스그룹에서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질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 3인에게 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

커스그룹 면담을 위해 도입질문 ‘최근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로 시작하여 핵심질문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 때 누구에게 연락하니까?’, ‘최근 우울하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입니까?’, ‘심리적 외로움, 우울감을 감소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로 구성하였으며, 마무리 질문은 ‘오늘 면담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로 마무리 하였다.

2.2.2 포커스그룹면담 진행

본 연구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총 5그룹, 2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D시 노인복지관 상담실장을 통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를 총 5회로 그룹을 나누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에 모일 수 있도록 진행해주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그룹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탁자를 원모양으로 배치하였고,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였다. 또한 자유롭게 이야기기를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리를 선택하여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시작 전 다시 한 번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녹취 과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 시작과 함께 연구자는 대상자의 간단한 상황별 몸짓, 표정 등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메모하였다. 면담은 약 50분~7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이 끝나고 연구자가 분석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할 수 있다는 공지도 함께 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통해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연구자의 관심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나 고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연구에서 진행된 자료로부터 연구자가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 직접 현상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행한 질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면담에 대한 녹음내용을 직접 연구자가 들으면서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다시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대상

자들이 답한 의미 있는 단어, 문장의 패턴과 주제를 표시하였고,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단위로 나누고 이들의 공통점 및 연관성을 고려한 후 주제별로 추상화하여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은 각 연구자가 각자의 핵심주제를 도출하고 연구팀이 3-4회의 논의를 통해 핵심주제를 최종 도출하였다.

2.4 연구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한 4가지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 신뢰성(credibility)확보를 위해 연구팀은 각 대상자의 인터뷰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괄호치기(bracketing)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면담 전에 독거노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든 측면에 대한 문헌고찰 및 기사 등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연구팀에서 분석한 최종핵심주제를 연구대상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적합성(applicability)을 위해서는 최대한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경험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감사성 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진행 및 분석과정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증성(confirmability)은 위의 3가지 요소가 확립된다면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질적연구를 위한 엄밀성 4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K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2017-113)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는 면담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포기 하더라도 연구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거듭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 내용의 녹취과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 중 중도탈락 연구대상자의 녹음내용은 즉시 삭제되어 연구 분석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외로움 경험에 대한 핵심주제는 ‘피할 수 없는 쓸쓸함’, ‘어쩔 수 없는 죽음’, ‘내 삶의 수용’ 3가지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으며, 세부주제로 ‘배우자의 부재’, ‘자녀를 위한 독립’, ‘주변인(친구)의 죽음’, ‘홀로 남겨진 죽음의 두려움’, ‘내려놓기’, ‘내 건강 챙기기’, ‘나만의 방식으로 외로움 달래기’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은 견딜 수 없는 또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표현하였고, 외로움 표현 끝에는 상황을 수용하고, 이를 위해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표현하였다.

3.1 피할 수 없는 쓸쓸함

본 연구결과 첫 주제모음은 ‘피할 수 없는 쓸쓸함’으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쓸쓸함에 대해 대상자들은 표현하였고, 세부주제로 ‘배우자의 부재’, ‘자녀를 위한 독립’,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3.1.1 배우자의 부재

연구대상자들은 배우자의 부재에 대해 쓸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남편가고 한 동안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아내가 병으로 먼저 가고 자녀들이 끔찍이 저를 챙겨줬어요...그래도 그 쓸쓸함.. 허전함.. 말로는 잘...”

3.1.2 자녀를 위한 독립

연구대상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을 때 까지 혼자 생활하기를 원했으며, 이후 혼자생활 할 수 없게 된다면 스스로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한다고 표현하였다.

“자식들이랑 있으면 내가 짐이지 뭐...그냥 나도 편하고 내 새끼들도 편한 게 좋죠.”

“내가 나중에 혼자 있기 힘들면 알아서 요양 그런 거 알아봐서 내 스스로 들어갈라고 자식들 힘든 거 싫어...”

3.2 어쩔 수 없는 죽음

본 연구결과 두 번째 주제모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세부주제로 ‘주변인(친구)

의 죽음, '홀로 남겨진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

3.2.1 주변인(친구)의 죽음

본 연구대상자는 주변인(친구)의 죽음에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큰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 옆집 할매가 나랑 같이 어제 밥먹고, 그 다음날 갔어..아파트 옆 동에 사는데 아직도 그 동쪽으로 못가겠어...”

“같이 매일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친구가 가는 걸 보고..아..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해요..”

3.2.2 홀로 남겨진 죽음의 두려움

연구대상자들은 독거노인으로 혼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또한 혼자 죽음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제일 걱정이죠.. 요즘 텔레비에도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그게 제일 두려워요...”

“애들이 안부전화 하기는 하지만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깐 걱정 되요..어느 날 밤 그냥 그렇게 갈까봐...”

3.3 내 삶의 수용

본 연구결과 세 번째 주제모음은 '내 삶의 수용'으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점차 혼자인 삶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부주제로 '내려놓기', '내 건강 챙기기', '나만의 방식으로 외로움 달래기'가 있었다.

3.3.1 내려놓기

본 연구대상자는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 가족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게 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혼자 있다는 게 낙인처럼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고 했는데 이제 뭐..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내 삶이니깐...”

“지금 내가 걷고 복지관 나오고, 잘 먹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3.3.2 내 건강 챙기기

본 연구대상자는 스스로 혼자만의 삶을 위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혼자 있는데 아프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요즘에는 공원 두 바퀴 돌면 30분, 꼭 운동하려고 해요”

“일부러 좋은 거 있음 먹으려 하고, 치매 안 걸리게 교육도 듣고 그래요”

3.3.3 나만의 방식으로 외로움 달래기

본 연구대상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각자의 방식인 친구만나기, SNS하기, 주변인에게 전화하기, 복지관 나오기 등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나는 친구랑 전화통화 밤까지도 해요.. 전화하고 있음 허전하지 않아요..”

“복지관에 매일 나오려고 노력해요 프로그램도 많고 여기서 친구들 많이 만들어요 이성친구도..(웃음)”

“노래교실 꼭 들어요 노래하고, 춤추면 그때는 좋아.. 신나고..”

Table 2. Experience of loneliness in elderly

Categories	Themes
Inevitable loneliness	- Absence of a spouse - Independence for children
Inevitable death	- Death of friend - Fear of death
Acceptance of my life	- Put my mind at rest - Keep my health - Comfort loneliness on my way

4. 고찰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을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독거노인의 외로움 경험에 대한 핵심주제는 첫째,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쓸쓸함으로 '배우자의 부재', '자녀를 위한 독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독거노인은 비독거 노인에 비해 전반적 삶이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며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정서·심리적으로

로 외로움과 소외감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10]. 독거노인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홀로 남게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정서·심리적으로 소외 및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독거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빈곤, 건강악화, 외로움으로 외로움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분화된 경제구조 하에서 독거노년층에게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2].

둘째, 독노인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인(친구)의 죽음과 혼자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노인이 느끼는 죽음불안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죽음에 관한 인식은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므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죽음불안감의 고조는 심리적 불안감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13].

노인들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처방식은 노년기 삶에 매우 중요하며 노인들은 살아가면서 죽음과 마주하고,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들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한다. 노인들 중 일부는 죽음에 순응하고 죽음을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4,15].

셋째,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점차 혼자인 삶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혼자 살기 위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의 방식으로 외움을 달래고 있었다. 노인들은 신체노화와 인지기능의 감소가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에 적극적이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가 작다[16-19].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도가 활발할수록 심리적 만족도가 높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낮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갖고 있을 경우 높으며, 빈곤한 독거노인의 경우는 주변의 물질적 지지가 빈곤하지 않은 독거노인의 영우는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건강한 노후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대상노인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전문가 양성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한 일부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연구 대상을 통한 검증을 통해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5). *2015 census*, Daejeon: STATISTICS KOREA.
- [2] K. H. Jung. (2013).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Issues of Living Alone, *Health/Welfare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81), 1-8.
- [3] S. D. Chung. (1999). Network 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6(1), 177-205.
- [4] D. B. Kim., & E. S. Sohn. (200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4), 167-187.
- [5] H. S. Kim. (2017).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07-218.
- [6] Y. J. Kim.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for Older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39-349.
- [7] H. S. Kim. (2017). The Regional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the Pre-Elderly/Elderly Suicide Rates and Policy Tasks.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291-298.
- [8] K. S. Chae. (2008). *Solitary Senior Citizen's Social Support Status Study: In Taebaek City*.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si.
- [9] K. M. Lee. (2006). *Mental health of the single elderly in Korea*.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10] M. R. Won & K. J. Lee. (2016).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pression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3), 195-206.

[11] K. S. Yu. & H. S. Park. (2003).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Senior People Living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4) pp.163-179, 2003.

[12] J. P. Kim & S. I. Nam. (2015).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Korean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5(3), 671-687.

[13] T. H. Kim & Y. S. Son. (1984). A Study on Attitude of the Aged toward Death Centering on Family Environ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nc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1), 3-19.

[14] S. Kim & K. S. Kim. (2016).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Death Anxiety of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2), 156-168.

[15] C. Y. Cho. (2014). Research of how the attitude of old people toward their own death affect their self-este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3, 203-227.

[16] M. A. Lee., J. B. Kim., & J. H. Kang. (2011). Living Arran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Science*, 29, 41-67.

[17] H. J. Choi & S. K. Back. (2015).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295-302.

[18] S. W. Lee. (2015).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of Laughter Recreation Convergence Educa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37-49.

[19] O. H. Kim. (2013). Analysis of Effects which Social Supports and Cohabiting Influence on the Elderly's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2, 234-255.

[20] H. K. Kim, Q. L. Lin & J. S. Ann. (2011).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1), 33-47.

[21] S. C. Lee & H. J. Jeon. The Effects of Combined Indicator in Income Level and Living Arrangemen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1, 53-76.

김 두 리(Kim, Doo Ree)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 E-mail: kdr2015@konyang.ac.kr

강 경 희(Kang, Kyung-hee)

[정회원]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구강보건, 노인, 삶의 질, 치매
- E-Mail : dhkhkang@konyang.ac.kr

이 병 임(Lee, Byunglim)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주관적 행복, 삶의 질, 소진, 치매, 노인
- E-Mail : kyclee@konyang.ac.kr

김 광 환(Kim, Kwang Hwan)

[중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 E-mail: kkh@konyang.ac.kr